

‘文정부’ 광주·전남 19개 공약 청사진

문재인 정부 5년 간 광주·전남 발전을 견인한 19개 핵심공약들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꼬박 70일 만이다.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공약화 된 광주·전남 발전 공약들이 대부분 반영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콘서트'에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한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일기 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발전은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와는 별개로 17개 시·도별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 공약 13개 등 지역 공약

광주, 미래형車+광주형 일자리·문화전당 활성화 등 전남, KTX 2단계 조기 완공·서남해 관광휴양벨트 등 5·18 헌법 전문·한전 공대·심혈관센터 등 상생 과제

143개는 올해말 국가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목표로 꼼꼼하게 비중있게 다뤄졌다. 대부분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에도 포함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와 전남 공약 각각 8건, 광주·전남 상생 공약 3건 등 모두 19건이 선정됐다.

광주 공약의 경우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자동차 전장(전자장치) 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등이 우선 제시됐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등도 8대 과제로 사실상 확정됐다. 전남 8대 공약은 '동북아 물류관광 미래산업 선도'라는 가치 아래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단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장 유지,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 확충과 호남고속철(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민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복합발

전플랜트 산업 추진 등이다. 또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목포 크루즈항, 여수 해양관광 순천 생태관광을 주축으로 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 벨트 구축도 핵심 공약에 포함됐다.

관심을 모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광주·전남 3대 상생 과제로 제시됐다.

이밖에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일명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상생 과제, 담양을 포함한 전남·북 6개 시·군의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은 전남·북 상생 과제로 분류됐다.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의 청사진이 제시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까지 실국별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맞춤형 신규 시책을 개발해 8월부터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실질적 정책 반영과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초지자체,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대응능력을 치밀하게 다듬어 국고 지원 명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과 도시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지역 공약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요지에 임명된 지역 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정치적 협상력 또한 극대화해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신봉우·김정환 기자



I-Plex 광주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 입주식. 문창현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동구 I-PLEX 광주 본관에서 열린 'I-Plex 광주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스타트업 입주식'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청년창업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목포 제외’ 광주·전남 21개 시군 폭염주의보

전남지역에 폭염 특보가 확대됐다.

1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무안·장흥·신안(흑산면 제외)·영광·합평·영암·완도·해남·강진·고흥·장성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앞선 17일 광주와 전남 화순·진도·담양에, 18일에는 나주·순천·광양·여수·보성·구례·곡성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남지역은 목포와 거문도·초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폭염주의

보가 발효중이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효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는 21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

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과 20일 예상 강수량은 각각 5~40mm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폭염과 함께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동구, 22일 찾아가는 달빛걸음 개최

동구는 22일 저녁 6시부터 광주남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달빛걸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향유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권역의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광주남초등학교에 위치한 시 지정 무형 제13호 문화재인 '화류소목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달빛걸음은 ▲국악인 오정혜의 '달빛공연' ▲지난 2015년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압살'을 상영하는 '달빛영화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달빛체험' ▲플리마켓 등으로 꾸며진다.

서구 “팔학산 愛서 놀이봄” 가족숲체험 운영

광주 서구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 동안 “우리 동네 숲 미중, 팔학산 愛서 놀이봄~” 가족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에는 트리하우스, 통나무건너기, 흙놀이터, 생태연못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체험시설을 이용한 '요리조리 미션을 풀러라', '자연물을 이용해 가족 얼굴 꾸미기' 등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면서 가족 간 교감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참여대상은 6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으로 오는 7월 28까지 희망명단에 따라 선착순 모집한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학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실시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남구 평화의 소녀상, 앙림동 펭귄마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광주시민들의 자주와 민주, 평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남구 평화의 소녀상'이 앙림동 펭귄마을 입구에 설치된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부지와 기금 모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푸른길 공원과 앙림동 펭귄마을 두 후보지를 놓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논의 끝에 위원들은 호남 독립운동의 거점지이면서 광주 NGO 운동의 출발지인 앙림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이곳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해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의미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했다.

북구, 오는 22일 용전들노래 한마당

광주 북구는 오는 22일 용전마을 일원에서 제19회 용전들노래 유두절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전들노래는 용전동 일대에서 불려져 온 흥겨운 들노래(노동요)로, 1960년대 말까지 구전돼 오다 그 맥이 끊겼다.

이후 2년여의 고증을 통해 1999년에 재현된 광주 북구의 대표 농요(農謠)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판 만들기·모찌기·모삼기·논매기·장원질·버베기 등의 용전들노래가 재현된다. 이어 설장구·진도북춤·승무북가락 등의 국악공연도 펼쳐진다. 용전들노래는 2014년 7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고시됐다.

임형택 기자